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1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계획하며 각 지회 총회 잇달아 개최

안수집사회 · 권사회 총회 이어 12월 한 달 동안

1995년을 한 달 남겨두고 한 해를 보내면서 각 지회에서는 이제 1년간의 모든 일을 결산하는 총회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에 지난 주일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회 총회의 막이 올랐다. 또한 전도위원회 산하의 각 전도회에서 일제히 총회가 시작되어 지난 주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각 지회 전도회 총회는 회원의 집에서,

음식점에서, 교회에서 각기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모여 1년간 지내온 일들을 나누며 친교하며 총회를 열어 1년간의 결산과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하며 새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로 했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는 1년 동안의 일들을 결산하고 새로운 인사로 인한 새 조직과 함께 새해를 계획하는 일들이 한창 준비중이다.

모든 일들의 마무리가 중요함에 비추어 각 부서의 총회를 통해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결산하고 서로간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12월 3일(오늘)은 전도위원회 총회가 오후 3시 본당에서 모인다. 신·구 각 지회 전도회장 및 연합회 회장, 전도위원회 위원, 임원들이 모두 모여 전도위원회 1년을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게 된다.

12월 5일(화) 오후 6시 교육관 109호실에서는 학원전도회 총회가 열려 1년을 마감하게 된다.

에바다부 제4회 수화찬양제 개최

12월 3일(오늘) 오후 3시~4시 30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에바다부(농아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도우심 속에서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즈음하여 이번 주일을 에바다부 창립 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화찬양제와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특히 수화찬양제에서는 초등부·중등부의 수화찬양과 율동, 고등부의 성극, 성인반의 찬양과 성극을 올리면서 소리가 아닌 수화로써 경배와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기쁨을 같이하기를 에바다부에서는 바라고 있다.

· 일시: 1995년 12월 3일(오늘)
오후 3시~4시 30분
· 장소: 충현교회 갈릴리움

12월 행사표

.....

12/ 6(수) 정기당회
12/ 10(주) 제직 및 교구원 임명
12/ 17(주) 위원회 봉사자 임명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12/ 25(월) 성탄절 감사예배
12/ 31(주) 특별제직회(IV부예배후)
근속 및 은퇴자 포상(저녁 찬양예배후)

충현기도원 전화번호 변경

.....

· 사무실: (0347) 65-5472
66-5425, 66-4425
· FAX: (0347) 65-5425
· 원장실: (0347) 66-3077
· 지도목사실: (0347) 66-1160

12월 4일(월)

신·구 교구위원 기도회

12월 4일(월) 오후 6시 30분부터 선교관 301호실에서 신·구 교구위원 기도회로 모인다. 김창인 원로목사 주관하에 모임이 기도회에서는 내년도 교구 운영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김창인 원로목사의 당부 말씀, 교회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된다.

전도위원회 총회

전도위원회 총회가 12월 3일(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모여 1년간의 전도회 사업의 결산과 새해 계획을 세운다. 각 전도회 95년도 및 96년도 지회장 및 연합회장들이 모두 모인다.

유아원 교사모집

충현유아원에서는 유아교육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교육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 자격요건: 세례교인, 유아교육 또는 사회사업 관련학과 전공자(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
- 구비서류: 이력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 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409)



군 세례식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에서는 지난 11월 29일(수) 육군하사관학교 내의 소망군인교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위로하고 세례식을 베풀었다. 이날 세례식에는 전도위원회 지도인 장경철 목사가 설교와 집례하여 진행했으며 104명의 하사관이 세례를 받았다. 이날 세례식에는 군전도회의 장로 8명과 32명의 회원, 또한 회원중 권사들로 구성된 호산나중창단이 특별찬양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1995년 12월 3일(주일, 오늘까지) 17:00까지
- 접수시간: 매일 오전 9:00 - 오후 5:00
- 접수장소: 사무국 (총무과)
- 접수종류: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선교위원회 사무실(TEL 552-8200 (교) 357번)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환난 중에 여호와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

(시 6:1-10)

시편 6편은 무서운 환난을 만났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가운데 회개에 대한 시가 일곱 편(6, 32, 38, 51, 102, 130, 143) 있는데, 시편 6편이 그 회개의 시 중의 하나입니다.

1. 다윗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건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6:1)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가 이러한 일을 아무리 당해도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억울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았으니까 면류관에 별이 달릴 것을 생각을 하니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잘못된 죄값을 생각하면 매를 천 번 만 번 맞고, 벌을 이보다 천 배 만 배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분한 마음으로 진노하시고 때리면 육신도 뼈가 부서지고, 영혼도 지옥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를 범한 종이 하나님 앞에 정계의 매를 맞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진노하시는 분한 마음으로 때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때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어진 마음입니다.

(2) 죄인을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6:2)라고 자기의 사정을 말합니다. ‘수척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몸에 병이 들어서 기쁨이 빠져 나가 체중이 점점 줄어서 뼈때 말랐단 말입니다. ‘뼈가 떨리나이다’, 살만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뼈가 떨린다는 말은 중심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살이 빠져 나가도 뼈만 튼튼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병이 나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뼈 속의 골수가 흘러 내려가 뼈까지 약해져서 몸이 휘청휘청합니다.

(3)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6:3-4)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은 병 들어서 약해져도 마음은 약해지면 안되고, 영혼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스테반은 몸은 돌에 맞아 죽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고, 영혼에는 천국이 우러러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니, 죄값으로 몸에 병이 들고 몸에 병들고 나니 마음도 근심이 쌓이고, 영혼까지

떨리게 된단 말입니다. 죄값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의 쇠잔해진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4) 살아 있을 때 구원해 주옵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6:5)라고 살아 있을 때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천하만사가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온 다음에 능률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지 않고 놀던 사람은 기회가 오면 벌벌 떨고 망신만 하고,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덤빈 사람은 수고만 하고 망신만 당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하물며 회개의 기회이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는 내가 세상 떠나는 시간까지입니다. 세상 떠나면 회개가 없습니다.

불이 내 집 한 모퉁이에 붙기 시작했으면 기회 놓침없이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내가 세상 떠날런지 모른다고 ‘아직까지 기둥은 안붙으니까 좀 있다 꺼버리지’ 그리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회를 놓친다는 말은 그만큼 형벌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가 어렵고 손해가 많다는 말입니다. 지옥불이 내 인격 한 모퉁이에 붙기 시작했으면 즉시 회개하여야 합니다.

2. 다윗의 탄식이 어떠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6:6-7)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느만큼 깊이 회개하나 보십시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저 말 한 마디면 다 되는 줄 알고 마음에 아픈 것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깊이 탄식하는 회개입니다.

이 탄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탄식하고 탄식하는 동안에 그만 몸이 피곤해졌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탄식이 깊어지니 이 탄식 때문에 울고 울고 또 울다가 눈물 힘이 없어졌습니다. 기운이 빠져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깊이 탄식하며 회개하니 눈물의 큰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배가 젖고, 침상이 젖고 요가 젖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자의 탄식입니다.

다윗은 핑계없는 정직한 회개, 원망없는 책임지는 회개, 낙심없는 믿음의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특징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이 “내가 눈물로 회개하니 내가 들어주마” 한 마디만 떨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용서하는 음성만 들리면 원수가 겁날 것 없습니다. 내 몸의 병이 아무리 중해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만 들으면 그까짓것 몇일

기도한 다음에 조금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취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건강하면 무엇무엇을 해야지, 선한 것을 설계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가다 낫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소망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회개하는 올바른 회개를 했습니다.

3. 다윗의 선포가 어떠합니까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6:8-9)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밖에는 원수가 많고, 몸에는 병이 들고, 영혼까지 부들부들 떨렸는데, 기도를 하고나니 “네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어도 눈처럼 회개 씻어주마. 네 죄가 아무리 태산같이 커도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기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먼 바다에 던져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의 건강부터 빨리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는 원수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악을 꾸며 내고, 악을 연습하고, 악을 위하여 갖은 행동을 다하던 너희들아, 이제는 나를 떠나거라. 하나님이 내 곡성을, 통곡하는 음성을 들어주셨는데, 너희들이 빨리 떠나가지 않았다가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매를 맞을 것이니 매맞기 전에 돌아가라.” 고 합니다. 얼마나 여유있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욕이 병들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은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갖은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욕이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이러던 못된 친구들인데, “욕아, 네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다음에 욕은, 병 중에서 자기 위한 기도를 한 마디도 안하고 친구만 위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욕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주실 때에 욕은 자기를 위해 달라는 말 한 마디 안했는데, 이전에 있던 복을 배나 주셨습니다.

신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나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것은 껌뻑한 좀스러운 기도입니다. 폭넓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빠

지면 안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크고, 나보다 내 나라가 큼니다. 큰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응답 받은 다음에 행악하는 무리들 벌받지 않게 하라는 교훈부터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아픈 몸이 병든 자리에 누워 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잔뜩 짊어졌지만 기도의 응답이 온 다음에는 아직 빚장이가 돈을 달라 하고 아직 몸에 병이 들어있어도 울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아직 병중에 누워 있었지만, 원수들이 불쌍해졌고 자기가 복받을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의 응답만 오면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조금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취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건강하면 무엇무엇을 해야지, 선한 것을 설계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몸에 병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영혼까지 쇠약해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그럴 때의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가 몸에 병이 들 때에, 원수가 조롱할 때에 내 죄값이 아닌가 하는 것부터 찾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찾아보고 만일에 내 죄값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시간을 지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하고 회개할 때에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마음에 평안이 온 다음에도 조금하면 안됩니다. 조금하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고 다시 몸에 병이 들지 모릅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이 온 다음에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말고 축복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이 받은 이같은 다윗 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서 길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시론

장로교의 신앙노선과 현실



1950년부터 10여년간 한국 교회는 보수신학과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앙노선을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원리를 가르치면서 은혜스러운 사경회로 일관하였다. 그런 덕분에 아직까지도 한국의 많은 교회는 보수적 신앙노선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김 차 생
(장로, 행정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신학노선은 대소요리문답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3년에 신학자 121명과 상당한 실력의 평신도 성경학자 30명 등 151명으로 구성된 기초위원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발기하여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걸쳐 회집하고 성안(成案)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 원죄,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주님의 재림, 지옥의 실재, 내세 천국 등이다.

이 고백서의 교리적 입장은 칼빈의 개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1648년 이래로 모든 장로교 교리의 표준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장로회 교단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지 1백여년을 내려오면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사실을 식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탱해온 것이다.

그리고 한국초대교회 목회자들은 이러한 신앙고백적 내용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하여 올바른 성경해석에 입각한 신앙원리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조용하게 교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우리나라에는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정책이 경제성장에 최우선적 역점을 두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교회도 교회성장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오순절 이외의 교단에서도 이를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무리가 뒤따라왔다.

이러는 중에 장로교단의 강단을 지켜온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은 작고하거나 은퇴하고 새로이 등장한 차세대 목회자들은 교회성장만 할 수 있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기도하는 소리, 설교하는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울먹이는 소리까지 흉내를 내고, 방언, 병고침 또한 강단에서 유행어는 물론 비속어와 심지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듣기 거북한 용어를 서슴치 않고 사용하는 등 불건전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인 모으기에 만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직 양적인 교회성장에만 정신이 빠져 있는 사이 교인들은 성경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므로 영적 갈급함이 심했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짐으로써 장로교회의 기본교리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교단적 특색을 가지지 못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1950년부터 10여년간 한국 교회는 보수신학과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앙노선을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원리를 가르치면서 은혜스러운 사경회로 일관하였다. 그런 덕분에 아직까지도 한국의 많은 교회는 보수적 신앙노선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이러한 교회성장 일변도의 인본주의적 발달과 방법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염려스

러운 것이다.

오늘날 이와같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는 분위기는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천주교식 교회처장에 열을 올리거나 집회를 열기만 하면 복음송으로 인위적인 열기와 감정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입에다 바짝 갖다 대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여 삼창',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교회내외적으로 집회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늘 틀에 박힌 간증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찬송을 불러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부른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성경의 원리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와 닿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사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큰 소리와 울동으로 가시적으로, 감각적으로 흐르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회의 목사라면 장로교의 기본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라야 하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 신학교에서 가르친 목회학은 학문에 불과하고 실천신학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젊은 목사들의 생각인 것 같다.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 온갖 이상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순진한 교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겠는가?

현대 교회는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한국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고귀한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으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선배의 고귀한 전통과 유산을 망그리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온갖 무서운 악령의 세력들이 침투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시급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책 소개

시대를 움직이는 선지자 학개

윤영탁 지음/ 합동신학교출판부/3,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입니까? 항상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딪혀 오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에 답변서를 장년 2부 교회학교를 지도하는 저자는 급변해 출간된 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은 평신도를 위한 강해중심의 학개서 연구서이다. 이 책은 저자가 평소에 사랑하며 애독하던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평신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교회의 목회자들이었다'고 보는 저자의 견해이다. 저자는 학개서를 연구하면서 은혜가 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교회의 목회자들이었다는 깨달음이다. 이들은 단지 하

나님의 대언자들과 생각하였을 때보다 그들이 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한 목회자들이었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메시지와 사역을 묵상하며 연구할 때에 내게 은혜가 되었다." 이 학개서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선지자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범적 목회자요 사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몹시 부럽게 여겨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짧은 학개서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회자상과 사역자상이 제시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학개서를 연구하는 동안에 학개 선지자를 존경하게 되면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마음 속에 생기는데, 그것은 내가 천국에 이를 때에 물론 찬송가의 가사처럼 '편지 사랑하는 주를' 외울 것인데만 마음의 조상 야곱과 함께 학개 선지자도 나를 반겨줄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 때문이다."라고 본서 연구의 감격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큰 은혜와 감격을 독자들 파 나누며 학개 선지자가 보여준 귀감을

조금이나마 본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로 표현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능한 한 각주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학개 선지자 당시 성도들을 감동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본서를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이 책을 내용을 살펴보면 편지, 학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학개 선지자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시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의문점들을 완전히 풀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학개 선지자의 고귀한 신앙 인격을 만나게 된다. 그의 모범적인 사역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한다.

특히 저자는 학개 선지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 물론 메시지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학개 선지자의 사역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학개서를 애독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실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자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깨달아 '학개'라는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희열'이 넘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누구인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조 동 원(목사, 출판국·제7교구 지도)



토·막·소·식

◆ 영아부는 십계명의우기 대회를 하고 반별 입상자를 발표했다. 1등에 별 4반, 2등에 별 5반, 3등에 별 6반, 장려에 별 6반, 달 3반이다.

◆ 유치부는 학년말 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1년 동안 과제물을 모으고 있다.

◆ 초등1부는 성경이야기 대회를 끝냈다. 믿음상에 박영준, 소망상에 김지혜, 이영혜, 사랑상에 현정은, 이은지, 조나영 어린이가 각각 입상했다.

◆ 초등2부는 추수감사절에 모은 모든 과일을 노인정에 전달했다.

◆ 초등3부는 1년 동안 모은 주보와 만사를 수집하고 있다. 오늘은(12/3) 학습평가가 있다.

◆ 초등4부는 내년도 진급을 위하여 생활기록부 정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초등5부는 진급을 위해 생활기록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이 없는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오늘 4학기 학습평가인 성경고사가 있다.

◆ 중등1부는 지난 추수감사절에 수집한 과일들을 '어린이의 집'에 전달했다.

◆ 중등2부는 동서울노회 주최 성경고사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 고등부는 재미있고 기념이 될만한 사진을 모아서 사진 콘테스트를 한다. 또한 중앙페스티벌을 12월 3, 10, 17일 매 주일 예배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대학부는 96년도 조직을 개편하고 각팀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

◆ 청년1부는 주일찬양예배 후 모이던 사역자 기도모임 및 예비조장 공부를 주일 오전대로 바꾸었다. 따라서 저녁시간은 동기모임, 지역직장 모임, 양육훈련 모임 등 자유롭고 자발적인 모임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모임들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 음향실에서는 노후된 마이크와 스탠드를 재생하기 위하여 각 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불량품으로 못쓰게 된 것을 수거하고 있다. 12월 10일까지 수거될 이 마이크와 스탠드는 갈릴리움 음향실이나 사무국으로 가져오면 된다.

수화찬양제를 개최하며



소리없는 몸짓, 영혼의 찬양 그 찬양의 현장에 초대합니다

박 상 준
(장로, 에바다부 부장)

한국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35만명의 농아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 여러 교파를 통틀어서 7,000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농아인들은 복음의 불모지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가장 비복음화된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그 중 중요한 원인으로 일반 교회의 농아 선교에 대한 무관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귀가 어둡다는 이유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누리지 못한 채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농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비참 감동과 환희 속에서 보람있는 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극히 부진한 농아 선교에 자극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현교회에 바다부(농아)는 한국 교회에 농아인 선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사명과 선교의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함을 확신하면서 농아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금번 에바다부 설립 7주년을 기념하여 네 번째로 수화찬양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일 뿐 아니라 충현교회 에바다부를 통해서 농아인 선교에 기폭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아인들의 존재를

건청인들에게 거리낌없이 알리기에는 수화찬양이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이며 이를 통하여 농아인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이 사회와 교회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기에 불편한 에바다부의 형제 자매들이 비록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드리 몸짓으로 드리는 수화찬양에 많은 성도님들은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농아인 선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아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초 위에서 참된 사랑은 가능합니다.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인 수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화찬양제'는 우리 충현의 성도들이 농아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받으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기를 원합니다. '수화찬양제'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12/4(월) 검찰복음화를 위한 조찬기도회 설교
· 12/4(월) 신·구 교구위원 기도회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6.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과 간)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7.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직분과 봉사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게 하소서.

... '어린이의 집'에 다녀와서...

이 진 정
(중등1부 15반)

11월 19일(주일) 선생님 몇분과 몇몇 친구들이 추수감사절에 정성껏 모은 과일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의 집'에 다녀왔다. 약 두 시간 남짓 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곳은 마을과 즉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었다.

주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산, 논, 밭과 같은 것들 뿐이었다. 그곳은 건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고 고약한 냄새까지 났다. 마치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았다.

정신박약아들이라 사람들이 함께 있기 싫어하고 외면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없이 던지는 따가운 손가락질과 찌푸린 눈살, 거친 욕설 등이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겁고 아팠다.

이곳에서 내가 놀란 것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정신박약아들의 뜨거운 믿음이였다.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식어버리는 내 자신과 비교했을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사회에서 차별받고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이들은 사람에게 굶주려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몸은 부자유스럽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찬양을 하는 그들의 얼굴에서 밝은 웃음과 순수함 그리고 진지함까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또 내 자신의 건강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가 정신 박약아들보다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 앞에 서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괜히 눈살만 찌푸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찬양대 지원을 위한 안내표

예배및명칭			구분	예배시간	연습시간	
					주일	평일
주 일	1부	가브리엘	07:00~08:00	예배전후 1시간	(목) 19:00~21:00	
	2부	임마누엘	09:00~10:00	예배전후 1시간	(토) 16:30~18:30	
	3부	할렐루야	11:00~12:00	예배전후 1시간	(토) 17:00~19:00	
	4부	아 멘	13:00~14:00	예배전후 1시간	(목) 19:00~21:00	
수 요	영어	시 온	09:00~10:00	시작전 1시간	(토) 17:00~19:00	
	1부	호산나(여성)	11:00~12:00	(주)16:00~17:00	시작전 1시간	
	2부	실로암	19:00~20:00		수요예배전후 1시간	